

# 제도권 공간에 선보이는 운동권 저술

## 재야 명망가들 책 출간 잇따라... 일부선 전집으로도

92년 한 해는 '선거의 해'로 불릴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정치적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이른바 '제도권'의 대립개념으로서 '재야'에 속하는 정치인 혹은 운동권 인사들의 괄목할만한 부상도 포함된다. 70년대와 80년대 후반까지 '비합법적' 공간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했던 이들은 87년 대선을 기점으로 대거 수면위로 떠올라, 본격적인 '합법' 공간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변혁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의 노선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도권으로의 편입과 대중성 확보를 최대의 과제로 삼는 선회로 볼 수 있다. '합법적 대중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즈음의 '한국노동자정당' 창당 움직임이나 이전의 '민중당' 결성 등이 이를 상징한다.

'불법'의 딱지를 댄 것은 비단 이들의 정치활동 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이름으로 씌어졌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들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이념지향적 성격이 약해지면서 이들이 지나쳐왔던 지난 연대의 궤적을 정리하는 회고록이나, 적어도 표면적으론 정치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에세이류가 최근 출간되고 있는 재야인사들의 출판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또한 달라진 이들의 위상을 반증한다.

### 에세이에서 추모문집까지 다양

80년대 후반까지 재야운동권 인사의 대명사였던 장기표씨(민중당 정책위원장)의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한길사)은 예의 특징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최근의 대표적 저작물로 꼽을 수 있다. 전집물의 성격을 띠기도 한 이 저작집은 그동안 그가 써온 여러 형태의 글들을 한데 모아 주제별로 묶은 것인데, 과격하다고까지 말해질 수 있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그의 운동가로서의 이력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신이 지향하는 거처가 '사랑의 정치'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당 활동과 함께 달라진 면모를 보여준다.

그 자신도 말하고 있는 바 "별난 족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나 정치도 사랑의 사회적 실천이며, 사랑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중의 정치, 과학의 정치, 도덕의 정치를 이룰 수 있다"음을 주장하는 한편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이라는 결론에 이름으로써 진보와 민주화에 대한 신념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

이른바 '재야'의 정치인 혹은 운동권

인사들의 최근 저술들은 예전에 비해  
형식이나 내용 모두에서 훨씬

대중지향적 성격을 띤다.

'선거특수'를 맞아 봄을 이루고 있는

일련의 정치인 저술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책들은

지난 연대의 또다른 기록과 변모된

재야의 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조한다. 한국사회의 개혁의 기본방향을 정치, 경제, 외교, 통일문제 등의 영역에서 살펴본 「한국사회개혁론」, '민중주체 민주주의'로 요약되는 그의 정치론과 운동론을 편 「민중시대의 정치와 운동」, 80년대의 정체분석을 가한 「80년대의 상황과 실천」, 86년과 87년 시국사건으로 구속됐던 당시의 저술서와 향소·상고이유서 등을 모은 「지배의 논리와 해방의 논리」, 정치시평을 비롯해서 노동현장체험기·서간문·에세이 등을 모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가족에게 보낸 옥중서간문만을 모은 「창실의 노래 햇살의 노래」,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글들만을 모은 「우리 사랑의 기쁨으로」 등 전8권으로 구성됐다.

87년 민중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백기완씨는 오래전부터 왕성한 집필력을 보여왔다.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민족문화 발간작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그는 「우리 겨레 위대한 이야기」, 「이십이 이야기」 등을 통해 구전되는 민간 설화나 전설들을 찾아내 특유의 입심으로 엮어내는 한편 최근에는 자전적 기록인 「나도 한때 사랑을 해본 놈 아니요」(아침)를 펴냈다. 「백기완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운동권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갖가지 일화들을 중심으로 그가 만났던 다양한 인물들과 당시의 상황들이 모자이크돼 있다. 이와함께 그가 자라왔던 시대적 환경과 가족사, '해방통일'이라는 그의 사상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탁월한 인권변호사로 명망을 쌓았던故 조영래씨의 1주기를 맞아 출간된 추모문집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창작과비평사)도 대표적인 재야인사의 저작물로 관심을 모은다. 대학 재학시절부터 운동



권에 투신,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에 연루돼 투옥과 수배를 거듭하다 지난 83년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여 망원동 수재사건, 부천시 성고문사건, 보도지침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대표적인 재야 인권변호사로 부상한 그는 90년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민주화운동에도 헌신했다. 빼어난 문장가로 각종 선언문과 연설문의 숨겨진 작성자로도 알려진 그의 글들 중에서 85년 이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씌어진 것들만을 모은 이 책은 일간지·월간지 등에 발표된 글들과 중요 사건의 변론문, 일기와 편지, 그리고 고인에 관계된 기사와 조감제·김지하·권인숙씨 등의 추모의 글들이 실려 있다.

조영래씨의 뒤를 이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동현씨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실천문학사)도 앞으로 그의 행보와 함께 눈길을 끄는 책. 83년 변호사 개업 후 허병섭목사의 '노동가요사건' 변론을 시작으로 대우어패럴 동맹파업, 여의도 농민시위, 이문옥 감사관 사건,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시위 등의 변호인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그는 최근 몇년 사이 활발한 문필활동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고질적 병폐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시사성 깊은 글들로부터 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제언들이 신중문예 출신 시인이기도 한 그의 문학적 역량에 힘입은 독특한 문체에 담겨 있다.

감사원 비리 폭로로 화제를 모았던 이문옥씨도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 등 활발한 사회운동을 보여주는 재야인사로 꼽힌다. 최근 출간된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동광출판사)는 90년 당시 수감되며 겪었던 체험을

비롯해서 감사원과 관련된 숨겨진 비리들과 타성에 빠진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담고 있다. 또한 주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대기업들의 각종 부정과 비리 사실들이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돼 있다.

한때 얼굴없는 운동가로 그 이름만 운동권에서 회자되던 정인씨는 80년대 중반부터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등의 저술활동을 실천운동과 병행해온 '80년대식 소장 운동가'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사람. 현재 「한국노동자정당」 창당작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의 최근 저서로 「뺨목을 이고 가는 사람들」(거름)이 있다. 청소년과 대학 신입생들을 염두에 두고 씌어진 이 책은 예수, 석가, 공자 등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을 '올바른 삶의 방법의 모색'이라는 일관된 주제 아래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사회과학 계열의 대중용 에세이로 볼 수 있다.

### 달라진 '재야'의 위상 반영

가장 최근에 출간된 지명도 높은 재야운동권 인사들의 저술들은 예전에 비해 그 '운동성'이 전면에 부각되기보다는 형식이나 내용 모두에서 훨씬 대중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하에서 지상으로'라는 표현이 상징하는대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들의 책들은 '선거특수'를 맞아 봄을 이루고 있는 정치인 저술물 출간 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난 연대의 또다른 기록과 현재의 변모된 '재야'의 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